2023년 제4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仁川廣域市
http://www.incheon.go.kr

문화기반과

□ 심의개요

○ 일　　시 : 2023. 5. 25.(목) 14:00 ~ 16:30

○ 장　　소 : 시청 영상회의실(본관 2층)

○ 참　　석 : 위원 10명

○ 주요내용 : 미술작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등 심의

○ 심의안건 : 7개소 12작품(조각 8, 회화 4 / 신규 7, 재심의 5)

□ 심의결과

○ 12작품 중 가결 11작품(조건부 9 / 권고 6) , 부결 1작품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작품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	1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RC3블럭	조각	Reflecting Donut			○	
2	2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원	조각	우주의 연금술 (Alchemy Universe)		○		조건부
	3		조각	선물(present) -실타래(skein)		○		조건부
	4		조각	movement -마장(馬場)터		○		조건부
3	5	미추홀구 주안동 1545-2	조각	솔		○		조건부
4	6	청라동 151-1	조각	행복을 꿈꾸는 가족		○		조건부, 권고
5	7	청라동 151-2	조각	행복을 꿈꾸는 현대인		○		권고
6	8	송도동 172-6	회화	Space-220716		○		조건부, 권고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작품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9		회화	Space-220712		○		조건부, 권고
	10		회화	염원		○		조건부, 권고
	11		회화	평온의 숲		○		조건부, 권고
7	12	부평구 부평동 665-8외	조각	치유		○		

□ 회의록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문화기반팀장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4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을 좌석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 오늘 참석인원은 총 10분입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작품은 총 7개소 12작품이며, 조각 8작품, 회화 4작품입니다. 이중 신규는 7작품, 재심의는 5작품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안건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점수표 작성 방법(채점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를 보시면, 각 5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이 만점이며, 70점 이상이면 적합,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적합”판정이 과반수인 경우에 해당 작품이 가결됩니다. 채점시 7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실 경우에는 채점표 하단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반수이상 찬성하여 가결된 작품 중 특별히 안전성, 도시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 또는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집계 후에 위원님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원안 가결을 할 것인지 조건부 또는 권고 가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며 해당 사유에 대한 의견 동의가 과반수 이상이면 가결됩니다. 참고로 “권고사항”은 군구와 심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되지만, “조건부 가결”의 경우는 향후 조건부 이행 여부를 심의위원님들께 서면을 통해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위원님들께서 마이크를 가까이 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오늘 회의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나눠드린 사전심의서와 출품 및 심의이력 자료를참고하여 심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전공 분야뿐만이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나 공공 미술로서의 역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시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작품은 총 12건입니다.

심의위원 총 12명 중 10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4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예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작품채점, 집계 결과발표, 심의의결서 작성,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작품 채점 순서는 작품별로 심의도서 검토 후 공개질의, 위원별 채점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4차 작품 회의에서는 12작품을 심의하게 됩니다. 순서는 신규 안건 먼저하고 재심 안건은 그 다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작품에 대한 심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Reflecting Donut>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1번 <Reflecting Donut>는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품 사진이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서 기 도서 보여드릴게요.

○○○ 뷰 하고 같이 나오는 거를 좀

서 기 네, 네. 도서에 있습니다.

○○○ 배경이 있는 화면을 띄워놔 주세요.

서 기 네.

○○○ 가장 잘 그…

○○○ 근데 저게 전반적으로 스테인리스 밀러 효과를 낸 작업인 것 같은데 저거… 주변이 도로가 가깝지 않나요?

서 기 도면 볼게요. 설치 위치가 여기고 도로 옆 같습니다.

○○○ 도로가 그쪽이죠?

서 기 네.

○○○ 그래서 저 스테인리스가 약간 그 문제시 되는 부분들이 눈부심이 있거든요. 자칫하면 저 도로 왕래하는 차들의 어떤 반사되는 빛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작품을 감상하는 데나 차량통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은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고려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팝아트적인 요소가 작품, 도시에 뭐 미관을 살리는 큰 어떤 시각적인 효과는 좋기는 한데 이 작가가 다수의 작품들을, 같은 류의 작품들을 계속 반복해서 설치한다는 건 한 번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은 부분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견해 있으시면 예. 보충 견해 있으시면.

○○○ 이전 작품은 팝적이다라는 말이 수용이 되는데요. 이 작품은 색을 빼고 형상이 좀 일그러지는 바람에 사실 작가가 팝적인 요소라고 말하기에는 그런 내용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작품인 것 같고요. 일단 작품 설명이 잘못된 것 같고,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품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 이전에 공공미술로서의 위치와 형태와 성격들, 크기 그리고 설치 위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고려돼야 될 거를 생각해 보면 이전에 이 작가가 작품에다가 컬러를 입힌 거일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좀 덜할 텐데 이거는 이제 색을 빼고 이렇게 미러형 광택을 내는 쪽으로 하는 거는 일종의 21세기 들어서 유명해진 ○○○ 조각가 그거 비치는 거의 효과를 십분 활용한, 그거를 응용한 것 가지고 보이긴 하는데 이게 많이 좀 일그러져 보이는 바람에 꼭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각적인 그 눈부심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장애가 될 것 같긴 합니다, 확실하게. 규모가 4m가 넘어가는 작품이기도 하고. 왜 이번 작품을 이렇게 색을 싹 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 작품이 항상 컬러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컬러가 들어간 것과 더불어 어떤 무늬와 형상들 때문에 팝적인 것을 강점으로 알고 있는 작가인데 이 작품은 사실은 그 작품 세계하고는 좀 달라서 다른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위치상으로 조금 눈부심이 상당히 강할 것 같은 우려가 살짝 듭니다.

위원장 어떤 구조나 안정성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 구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저게 그 인근 도로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주변의 건물들하고의 밀접해 있어

서 저기서 반사되는 빛들이 건물이나 어디로 이렇게 흡수가 되느냐, 계속 그 눈부심이 저게 좀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장소를 선택을 할 때 작품의 어떤 재질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주변에 지장이 되지 않는 어떤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건축주하고 작가하고 이렇게 협력이, 협의가 잘 않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작품별로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예.

○○○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향이 서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우려하시는 바처럼 저녁 시간대에 해가 넘어갈 때 좀 반사 우려가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크기가 좀 상당히 큰데 보통 이제 상업시설 이제 저게 커서 좀 그런, 이런 우려가 조금 걱정은 되는데요. 스트리트 볼 진입구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대각선으로 있어서 조금 그거는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 의도가 지금 미러로 했는데 저거를 뭐 기존에 색채를 좀 넣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대안이 있으면 조금 더 지금 우려하시는 바가 조금 더 많이 상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건물하고도 얼마나 거리가, 사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사진이 있을까요? 또는 뭐 치수가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그 어…

서 기 제출한 도서상으로는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라면 그 아래층에는 뭐 상가가 있는 건가요? 아, 그럴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아마 앞에 상업행위를 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오거든요. 조형물이 앞을 가린다고. 예술성 이전에 그분들이 사업하

는데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작품이 가끔 위치를 떠나서 떠돌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최악의 사태는 최악인지 모르겠지만 조형물이 실내로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예술작품 좋아하는 사람이나 뭐 예술이 우선이지만 생계에 올인한 사람은 그게 이제 민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 이게 거리가 한 10여m 남짓 안 돼 보이는데요.

○○○ 뭐, 그 정도 거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10m 정도 거리면.

○○○ 정확한 이제 도서로 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규격을 좀 줄이는 방안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 아, 크기는 충분히 고려된 듯 하고요. 그거는 사실 크기는 뭐, 저기 광화문에 ○○○ 앞에 있는 ○○○건물이 있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망치질하는, 그건 한 30~25m 돼도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크기는 크게 문제시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 그리고 사실 4~5m면 큰 건물 앞에 있으면 커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 건물이 하도 크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 중요한 건 그 크기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어떤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걸 지적할 수 있으면 지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 기 지금 여기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고 최고가 35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계속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채점을 하는 걸로 하시고요. 또 거기에 코멘트를 달아서 채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점 중)

위원장 채점을 마치셨으면 집계를 위해서 채점표를 책상 우측에 놓아주시면 관계자가 걷어가서 집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원

2) <우주의 연금술(Alchemy Universe)>

3) <선물(Present)-실타래(Skein)>

위원장 자, 2번부터 4번까지는 한 장소에 설치되는 작품입니다. 심의는 2번과 3번을 먼저 그리고 4번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우주의 연금술(Alchemy Universe)>과 3번 <선물(present)-실타래(skein)>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2번부터 4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감사합니다. 우선 2번 작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품 내용이나 작품 가액 대비, 작품의 규모 등 뭐,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예,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좀 좋은 작품을 계속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 저 작품에 지금 가운데 이렇게 일정한 이 유선형들이 다 뚫려 있는 건가요? 따로 이렇게 한 건가요?

○○○ 안에 조명이 들어오죠?

○○○ 그렇습니다.

○○○ 그 혹시나 이제 안전적인 차원에서 보면 혹시 아이들이 저기다가 손을 넣었다, 뺐다 할 것 같은데 그럴…

○○○ 막혀 있는 거 아닌가요?

○○○ 뚫려 있다고

○○○ 뚫려있는 거예요?

○○○ 예, 그래서 안전적으로 보면 저기를 투명하게, 투명한 강화유리로 막거나 좀 막는 방법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 그거를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강화유리나 막은 건지, 투각인지. 근데…

○○○ 딱 보니까 투각인 것 같다, 하늘이 보이는 거 보니까.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 근데 그 둥글게 마감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외곽 같은 거는 그것도 둥글게 마감 처리를 해서 뭐 크게 뭐 이렇게.

○○○ 진짜 애들이 손 집어넣을 것 같이 생겼네요.

○○○ 예.

○○○ 이렇게 좁아지는 부분에.

○○○ 그리고 저런 게 또 쓰레기 버리는 (웃음) 그런 경우도 좀 왕왕 있어서 한번 검토만 해 주세요.

○○○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런 형태의 작품들은 이제 외형, 이제 파이프로 연결해서 다 보강을 한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손을 넣어도 크게 막 끼이는 그런 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부 부분에도 생각보다 넓게 뚫려 있더라고요. 제가 대략 치수 확인을 했어도 성인 손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정도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물질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거는 쉽게 빼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작품의 어떤 전체적인 것보다 이 조명에 관한 건데 요즘 조명이 사실상 미술 작품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내부가 너무 밝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없는 작품도 많아요. 특히 이 작품은 내부 조명에 의해서

효과를 많이 보이려고 하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 내부의 조명을 키게 되면 이제 외부로 이제 그림자가 지니,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문제는 심의도서 상에 내부 조명이 2W으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2W를 1자를 빼서 실수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부 조명은 6W예요. 그러면 내부 조명이 3개가 비추면 내부 조명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너무 약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 작품이 어떤 조건부나 어떤 권고사항이 되면 내부 조명을 좀 12W 정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외부 조명을 뭐 6W 해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장 문제인데 도장도 일반적으로 보통 우레탄 도장을 많이 합니다. 우레탄 도장을 많이 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작품을 제작을 하고, 퍼티를 하고 그렇게 해도 도장 같은 부분 특히 파이프랑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상으로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 그 안에 LED 조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 예, 안에 가운데, 밑에 하부에 조명이 하나 들어가는데 지금 심의도서상은 2W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서 기 네, 맞습니다.

○○○ 그래서 그…

○○○ 그래서 이거를 12W로… 이렇게 외부 조명이 밝으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내부 조명이.

서 기 지금 내부 조명 1W로 되어 있는데요.

○○○ 네?

서 기 1, 숫자 1, 내부가.

○○○ 2W, 2개 아닌가요, 2개?

○○○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 안에…

○○○ 이게 LED 2W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 안에 조명만 좀 강한 거 하고

○○○ 예,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 바깥의 조명들은 굳이 없어도

○○○ 빼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 효과가 더 이게 안에 이 효과가 안에 조명을 좀 강한 걸 쓰면 외부에 굳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야간에도 감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 조명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명기를 해줬으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건부로 좀 다뤘으면 합니다. 이게 조명이 만약에 갈아야 될 시기에 어떤 방법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간다라면 이 작품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작품 설치 상세도에 작품 어떤 제작 방법이라든지 재료의 두께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스테인리스 스틸 304로만 되어 있지, 물론 작가님께서 알아서 작업을 잘 하시겠지만 이런 두께 표기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얇은 걸로 하면 솔직히 한 초등학생 정도 발로 차면 바로 찌그러지거든요. 한 2T 정도 이렇게 써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3T 정도 써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파이프 같은 경우도 이게 몇 파이, 파이프…

○○○ 파이프가, 파이프는 없네요, 두께가. 예, 그 파이프도 몇 파이로 쓸 건지, 두께는 몇 미리로 할 건지 이런 것도 대략 표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재료의 두께는 무조건 조건부로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거의 일반적으로 3T 정도는 하지 않나요?

○○○ 일반적으로 3T는 하는데 만약에 이게 단조, 두들겨서 만든다, 이런 경우는 3T는 불가능하고요. 2T 내지 2.2T를 주로 많이 쓰는데 이거는 약간 단조 방법이 있기는 해요, 둥글어서. 근데 굉장히 굴곡이 심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3T를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게 한 판으로 만든 거보다 조각조각 만들기 때문에 3T면 될 것 같습니다.

○○○ 조건부로 안 달았는데 거기에

○○○ 표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 이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 그러니까 그냥 작품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재가 안 된 부분 같으니까 거기에 저희가 조건부로 다뤄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이 주변에 라인에 보니까 라인 부분이, 그 뚫려진 라인 부분에 뭘 덧 댄 것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두께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정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 이 달걀 형태에서 저 면에 따진 라인들이 살짝 지금 둥그렇게 라인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마 작가가 그걸 예상해서 작업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까 손 끼임이나 이런 것들의 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저것이 그냥 따지기만 하면 출렁이고 얇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걸 또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예, 저 두께, 파이프가

○○○ 예, 라인에 이렇게 겹친 것 같아요.

○○○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형태를 잡아줘요.

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여러 의견들을 좀 거기에 코멘트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면 채점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 작품 또 토론을 해보죠. 이 작품에 대해서 또. <선물(Present)-실타래(Skein)> 라는 작품입니다.

○○○ 같은 장소로 들어가지만 다른 작가죠?

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 대체적으로 그 작품들을 보면 어떤 작품의, 어떤 그런 형태보다도 작품 제작이라든지 어떤 설치 방법, 재료 이런 것들을 표기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작품 같은 경우도 파이프를 30파이, 40, 34파이, 뭐 60파이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0파이가 안 나오거든요. 32파이나 아니면 34파이는 나오는 것 같고. 28점 몇 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물론 요거는 이제 작가 선생님들이 대략적인 형태를 잡기 위해서 한 것 같고 여기에도 보면 이제 두께라든지 이런 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프도 외경이 있고 두께가 있는데 이런 두께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게 밴딩에 들어가서 얇으면 안에 주름이 생기고 그다음에 너무 두꺼우면 밴딩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적정적인 두께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2.8mm라든지 3mm 이 정도 쓰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표기하면 좀 더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위원장 예. 그런 건 조건부를 명시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채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채점이 끝나시면 채점표는 오른편, 책상 오른편에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채점 중)

2.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원

4) <Movement-마장(馬場)터>

위원장 예, 다음으로 4번 <Movement-마장(馬場)터>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4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마장터라는 게 이 지역이 뭐, 마장 이런 게 있는 건가요?

○○○ 그 부평 쪽에 백마장이라고

○○○ 예.

○○○ 예,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 부평 쪽에 그 백마장이라고 해가지고 마장이 있던 그것 때문에 제목이 그런 것 같습니다.

○○○ 근데 그 마장하고 저 작품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좀 헷갈리는데 전체 구성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장에 새로운 의미가 있다든가 그래서 그 의미가 좀 반영된 작품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 중간 부분에, 흑색 부분에 있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좀 크게 확대해 볼 수 있을까요?

서 기 중간이요? 크게 보이지는 않고

○○○ 아, 그런 어떤, 그런 이미지들로 아마 음각이나 양각을 해서 아마 표시한 것 같습니다.

○○○ 봉황이 있고, 천마도 있고.

○○○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여기… 예. 사신도가 새겨져 있다고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글로. 그런데 그렇지 않게 지금 제작이 되어 있어요.

○○○ 뒤에는 또 ○○ 되어 있고. 사신도랑…

○○○ 각 면마다, 사신도 면마다 확대된 건 없나요?

○○○ 그러니까 가운데에는 보니까 ... 별이랑 태양, 하늘을 표현한 것 같고. 양쪽으로는 이제 나비라든가 오른쪽으로 문양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계획적으로 제작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근데 이게 사면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문양을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 예, 여기 설명을 제가 못 읽어봤는데 설명도 없고요. 잠깐만요. 사신도 음각.

○○○ 사신도 음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신도가 다 있지 않거든요.

○○○ 사신도 하고 백마장 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 사신이 그 청룡, 백호 그 사신이 아니라 백마장에 오는 사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 아, 그 사신이 아니라요?

○○○ 네, 그러니까 대사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 대사들을.

○○○ 아니, 여기 작품 보면 37페이지 보면요. 주작이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 아, 그래요?

○○○ 예, 37페이지에

○○○ 예.

○○○ 오른쪽에 저기가 이제 주작이 아닐까. 예, 호랑이 그림. 천마, 주작.

○○○ 네, 저는 앞서 작품보다 오히려 이 작품이 소각이, 그 문양들이 더 날카롭고 손이 더,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 높이가 사람이 이렇게 손을 쉽게 댈 수 있는 그런 높이인가요?

○○○ 그런 높이는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이 하면 그 높이는 되겠지만 어린이들이 하면 점프해야 될 높이 정도 될 것 같아요.

○○○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165cm인데 한 이만큼 오니까 여기까지가 한 90cm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맞나요? 봐드릴까요?

○○○　90cm되면 그거 구멍으로 새들이 들어가서 둥지 틀…

○○○　일단 뭐, 작품은 제목이 말해주듯이 그 지역을 의식하고 만든 작품 같은데 그 형상성으로부터 느껴지는 어떤 좀 이렇게 관련성이나 어떤 신선함 같은 게 좀 부족해보이고 그리고 재료에 혼합, 혼용된 그 방식이나 시각적 효과가 스테인리스하고 돌하고 연결된 어떤 혼용된 재료를 사용하는데 왠지 이게 좀 색다르게 조금 이렇게 좀 독특하고 매력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진부해 보이고, 너무 뻔해 보이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까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조형성 자체가 조금 구조 자체가 재료 연결성 같은 부분은 좀 억지스러운 부분은 살짝 있어 보입니다.

○○○　그리고 저 그 원이 좌대라고 하는 형태, 네모난 형태에 올라간 것도 너무 좀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좀 밑으로 바닥에서 아예 잔디에서 올라왔으면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왜 저기에 올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

○○○　바닥에 살짝 잠겨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게 공감감이나 그런 것들이 작품이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데 저건 오히려 소품, 작은 소품 위에 올려놓듯이 지금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좀, 공간 구성이 좀 아쉽네요.

위원장　네, 더 말씀 없으시면 그런 내용들을 채점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점 중)

○○○　예,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만약에 이 작품이 가결이 되더라도

지금 이 작품 또한 스테인 두께가 명기가 안 돼 있어요.

○○○ 네, 네.

○○○ 시공 상세도 다소 부족한 부분이고.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하면 두께는 3mm 이상 사용, 예. 이거 뭐, 거의 뭐 강제이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걸어서 가결이 된다고 하면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예, 그런 건 조건부로 가결 시키면 되는 거고요. 또 점수가 안 된다면 그건 논의 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 네, 네. 만약에 된다면. 예, 뭐 2mm짜리 쓴다든지 뭐 정말 1.5mm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격을 줄이려고 또 그래버리면 그건 문제가

○○○ 예, 예, 2mm로…

○○○ 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이게 2mm로 쓰게 되면 저 레이저할 때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3mm로 쓸 것 긴 합니다.

○○○ 아, 예.

○○○ 그런데 이제 조건부에 명시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미추홀구 주안동 1545-2번지 일대

5) <솔>

위원장 다음으로 5번 <솔>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5번 작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보니까 그 옆에 파고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여지는 구도 자체를 이제 조형적인 작품 그 뒤쪽으로 또 수직적인 조형까지는 아니

어도 어쨌든 수직적인 휴게 시설이 있다 보니까 좀 겹쳐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좀 이 작품이 묻혀지는 느낌이 있어서요.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좀 그래서 여기 위치가 적정한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뒤쪽에 티 하우스가 있습니다.

○○○ 티 하우스. 커피 같은 거를 마실 수 있게끔 지붕이 있는, 의자 있는 파고라 상태의 가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 예, 티 하우스.

○○○ 사실 조형물이라는 게 어떤 설치되는 공간에서 돋보이는 류의 작품이 있고 또 그 환경에 ○○된 작품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주로 심의위원님들이 이제 표현했듯이 그 주변에 어울리는 쪽으로 방향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이 작가가. 그러니까 노출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3개의 미음자 형태의 기둥 같이 세우는 그 형태 자체도 그냥 그 안에서, 아주 단순한 형태 안에서도 그걸 조금 변화를 찾으려고 그런데 그 변화가 이제 두드러지는 변화라기보다는 그 공간, 환경에서 어긋나지 않게 웬만해서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솔잎 형태나 기둥의 형태를 그냥 제한적인 변형을 좀 가한 것 같아요,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아까 지적하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거 하고 빗대어서 설명해 보면 오히려 주변에 뒤에 있는 건물이 뭔가 수직, 수평적인 직선적인 거와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저런 구성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 약간 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앉아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눈높이에 편안한 느낌이 약간 낮은 쪽으로 해도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나무의 어떤 숲 같은 느낌의 이렇게 겹쳐지는 세로 선에 대한 느낌이어서 숲속에 있는 느낌 같은 거를 이제 작가가 의도했으면 나름 그것

도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실 때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제작방법을 좀 중요시해서 보는 편인데 이 기둥의, 기둥을 어떤 소나무의 껍질을 표현하는 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둥에 타공을 하고 나중에 폴리카보네이트로 접합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작품의 형태는 타공을 한 다음 밴딩을 거쳐서 작업을 완성하는 형태라 나중에 이 파공한 부분에 폴리카보네이트를 덧 댈 때 얘가 공면은 될 수가 없기는 해요, 사실. 폴리카보네이트 자체가 여기 시공 방법을 보니까 이제 그 실리콘 처리를 해서 부착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폴리카보네이트는 면으로 갈 거고, 이거는 이제 굴곡으로 갈 거니까 그런 부분의 맞닿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작품도 또 재료의 두께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작품이 조건부를 걸게 되면 재료를, 재료의 두께 이런 것들을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 작품이 조형적으로나 미학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위원님.

○○○ 이게 뭐, 환경적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품성하고 공공성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게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소나무의 형태의 문양 같이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좀 파가지고 촉각으로 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채점을 진행하시고요.

(채점 중)

4. 청라동 151-1

6) <행복을 꿈꾸는 가족>

위원장 다음으로 6번 <행복을 꿈꾸는 가족>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6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분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작품이 어떤 패턴 형식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의 공통적인 느낌이 상당히 일률적이고 규칙적인 그런 규칙에 의해서 만든 형상 같은 느낌이 들어가고 때로는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족의 형태는 사실 디테일은 살아지지 않지만 사실 형상이나 디테일보다는 전체적인, 전체 만들어진 결과로서의 어떤 형상, 형태의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색깔이 만약에 굉장히 짙었다면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형태이긴 한데 색깔 자체가 굉장히 밝고 산뜻하게 채워져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규칙적인, 규칙적이고 지루한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이긴 하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흥미로운 그런 시각적인 현상들이 눈에 보여서 저는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

○○○ 예, 오랜만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어떤 사실을 근거한 작품이고 또 우리가 사실 일반인들이 우리에는 이제 인체라는 소재가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도 있고 해가지고 사전심의서를 확인할 때도 그래서 다른 작

품보다는 좀 이렇게 와 닿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 저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이런 이제 천편일률적인 작품들이 제법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새로운 기법이 지금 나오는 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뒤에 있는 작품도 같은 작가입니다?

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 아, 그래요?

위원장 그렇습니다.

○○○ 아, 예, 알겠습니다.

○○○ 저는 낮에는 컬러, 파스톤 텔이라 괜찮을 것 같고 좋은데 이게 야간에는 야간 조명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조금 좀 뭐랄까, 컬러감이 없기 때문에 좀 괴기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 조명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형태가 좀 잘 어우러질 수 있게 한 번 좀 검토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예, 약간 고스트 같은 느낌도 있고요.

○○○ 예, 약간 조형이 밑에서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제

○○○ 네, 네, 네, 그럴 수도 있어서.

위원장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예.

○○○ 예,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게 형태적으로 위가 넓고 머리 부분이 이렇게 작다 보니까 밑에서 비추면 아마 머리는 이렇게 더 어둡게 나와서 이렇게 잘 한 부분이 인지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느낌이어서.

○○○ 뭐, 작가가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조명보다는 작품 내부의 어떤 특정 부분에서 조명이 약하게라도 있어주는 게 그거에 따라서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비춰서 그냥 올려 버리는 거보다는. 왜냐하면 그 작품 자체가 땅바닥에

있지 않고 약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밑에서 위로 쏘는 조명은 별 현실적으로 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그런 내용은 의견을, 코멘트를 달아서 이렇게 채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럼 채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채점 중)

5. 청라동 151-2

7) <행복을 꿈꾸는 현대인>

위원장 사회자께서는 7번 <행복을 꿈꾸는 현대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7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 예, 저런 분들도 제작 방법인데요. 사실 이런 유닛의 형태로 연결되는 작품들의 가장 문제는 사실 그거거든요. 물론 앞서 있는 작품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조립을 할 때는 용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어떤 식으로 용접을 하는지를 대충 알겠는데 점용접을 하는 곳이 있고 풀용접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심의도서에는 풀용접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점용접으로 하면 그 틈새가 나중에 도장 부분이 몇 년 지나면 갈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작가한테 좀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권고라든지, 조건부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별건 아닌데

옆에 이제 글귀가 들어갑니다, 책 옆에. 이거를 ○○로 할 건지 스카시로 할 건지 아니면 레이저 코팅을 해서 부착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도장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거 보니까. 보면 이제 레이저 커팅으로 해서 붙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설치 상세도라든지 제작 방법이라든지 기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컬러 같은 경우도 파스텔 톤을 유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지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작품을 제작 설치할 때는 원색으로 가는 경우가 의외로 또 많아서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서 제작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상세도 8번에 보시면 옆에 글씨는 스카치 붙임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 저도 색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인체의 형태는 거의 뭐 처음에 본 거에 그냥 그 사이사이에 파란 색깔이 보이긴 하지만 지금 모습에서는 거의 뭐, 흰색으로 보이거나 그러는데 흰색인지 뭐 무슨 색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볼 때는 사이사이가 여기에 색깔이 있나요? 아니면 뭐 연결…

○○○ 밑에 게 반사 되어서

○○○ 반사 돼서 보이는

○○○ 예, 밑에 비추는 걸로.

○○○ 라인에서 보이는 거를 연결 부위라서 그냥 보이는 걸까요?

○○○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 그러면 위에 인체에는 색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 네, 네, 그냥 회색, 무채색 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려를 말씀하신 대로 밑에 책의 색깔이 너무 짙어지면 진짜 유치한 작품이 돼버리니까 색깔의 성질이나 그 색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들어가는 글씨 같은 것도 그렇고 최대 굴곡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디테일을 조금 굉장히 적어도 이 그래픽에 나오는 거 이상으로 디테일이 잘 갖춰지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저 우레탄 도장 같은 경우는 색깔이 그 햇빛에 노출됐을 때, 24시간 햇빛에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조금씩 탈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색깔이 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 물론 탈색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1, 2년 만에 탈색되는 건 아니고 도장 여부에 따라서 10년 이상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대신 이제 외부의 클리어를 굉장히 잘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작품들이 거의 칼라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클리어를 칠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 그 우레탄 도장이 자동차 도장 하는 거랑 같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자동차는 계속 청소를 하고 광을 내고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유지보수 관리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번 설치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돼서 작품들이 그걸 유지될 수 있게 어떤 그런 부분이 문제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레탄 도장은 해놓으면, 관리만 잘하면 10년 이상 충분히 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금 작품에 비해서 녹지대가 너무 좁다 보니까 좀 다소 답답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요. 이게 만약에 조경 쪽이랑 협의가 된다면 저 녹지대를 등의자 쪽까지만 좀 당겨서라도 의자를 놓지 말고 연식 그 앉은

벽처럼 그렇게 해서 녹지대를 조금 넓힐 수도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그게 원래 있는 건지 위치가 아니면 그냥 갖다놓은 건지 계획하시는 분이, 그건 모르겠네요.

○○○ 이렇게 가는데 저런 배치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나.

○○○ 그렇죠, 플레이트가 조금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경 계획이 그 5페이지에 보면, 조경 계획이 있어서 이미 조경으로 아마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공개공지다 보니까 아마 조경 쪽이랑 협의가 되면 조금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 네, 그런 의견도 코멘트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채점을 하겠습니다.

(채점 중)

6. 송도동 172-6

8) <Space-220716>

9) <Space-220712>

위원장 8번부터는 재심의 작품입니다. 8번부터 11번까지는 한 장소에 설치되는 작품입니다. 심의는 8번과 9번을 먼저 하고 그리고 10번과 11번을 이어서 두 작품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번 <Space-220716>과 9번 <Space-220712>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8번부터 11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일단은 8번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제품 두 개가 같은 모양인데 그 높낮이를 첫 번째 작품은 가운데에 했고요. 두 번째 제품은 양옆을 했습니다. 근데 우선 위치가 지금 페이지가… 7페이지 보시면요. 또 건축물 배치도 보시면

○○○ 네, 7페이지 입니다. 네, 복도 부분에 지금 꽃 작품이 지금 계단3이라고 하는데 있고 그다음에 조금 로비 같은 쪽으로 해서 저 위에 작품 있는데 사실 이 두 작품이 같이 지금 통로 쪽에 앞에 마당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작품이 지금 스케치가 같은 형태에서 높낮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왼쪽에 이제 복도에 같이 진열이 되면 훨씬 어, 아우라나 이런 것들이 더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색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게 화면상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누렇거든요. 누런색이 아니라 좀 장미의 그 노란색깔 느낌이 생겨날 수 있게 색깔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뒤에 거울이라고 했는데 거울이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표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전에 뭐 쓰신 거 보니까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는 거를 대신 뒤에다가 두고 그 위에 나머지 캔버스 작게 한 것들, 그런 것들을 올리면 안정적으로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러니까 사전에 썼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해 주셔서. 사실 이게 뭐랄까, 사이즈도 사실은 두 개가 같은 그림의 같은 사이즈에 양쪽에 대한 그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면 완성도도 좀 높아지고 그거에 대한 서로 비교라든가 이런 느낌이 돼서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사이즈도 다 제각각 두 개가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위치나 이런 것도 다 떨어져 있어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연결돼서 느껴지는 그런 구조적인 연결점 이런 것도 너무 안 나와 있고 좀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화하시는 분들이 이런 구조적인 데

로 접근하실 때 제일 이제 좀 약해지는 부분이 아웃풋에 대한 완성도 내지는 디테일 같은 게 좀 떨어지면 오히려 작품성을 더 떨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좀 많이 아쉬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실 개인적으로 화가가 활동하면서 전시를 할 경우에는 믹스드 미디어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 사실 이렇게 조형 작품으로 나올 때는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면 안 되죠. 아주 자세하게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를 명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게 심의하는 데 장애가 되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요. 작품을 한두 번 걸어본 작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작품성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심의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회화 작가로서 작품에 대해서 좀 보면 본인이 작가가 선택하고 싶은 장미하고 노란 색깔, 충분히 본인이 선택했겠죠. 근데 그것과 저런 큐브 같은 것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릴리프 효과와 평면이 만나면서 만들어내는 그 현상에 대한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시각 효과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장미하고 노란 색깔을 선택한 것 같이 보이고요. 과연 저 정육면체 큐브가 이미지와 또는 전체 화면의 구조에 어떤 역할을 하려고 저기 있는 건가. 단지 표면을 파괴해서 뭔가 독특하다는 그 인상만을 내포하려고 저런 형식을 취했나, 이런 약간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아까 믹스드 미디어라는 말을 처음에 얘기했듯이 조금 더 유화라고 오일이라고만 해둔 걸로 그냥 끝난 것 같이 보여서 다소 아쉽고요.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허락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작품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저도 그 작품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실험적인 것

은 굉장히 좀 신선하게 봤습니다. 기존의 평면 작업이 너무 이제 평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그림이 깊이감을 좀 보기가 힘들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다양한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작품하고 유기적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작품에 대한 그리고 또 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 혹시 이 작품이 몇 호 정도 되나요? 지금 200호 정도 되나요?

○○○ 사이즈를 보는데 예, 호수로 보면

○○○ 변형이기는 한데 한 150호 정도 되어 보입니다.

○○○ 예, 변형이기 한데.

○○○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또 항상 또 제작 방법인데 그거울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내구성이 떨어지고 영구적이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물론 작품의 그 아크릴이 씌워지기는 해도 이 거울이라는 것 자체가 뭐, 최소 미술 작품을 하게 되면 건물이 부서질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스테인리스 스틸 슈퍼 미러로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제가 의견 낸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사각 하나 하나를 어떻게 부착할 건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거를 실리콘으로 붙일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명기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근데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게 작품의 사후 관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유지 보존 계획을 보면 LED 전광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LED 전광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작품 하나, 셋, 네 점 모두 다 유지 보존 계획의 LED 전광판이라는 내용이 다 있어요. 이게 뭐 실수 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신경을 안 썼다는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봤을 때는. 내용도 다 똑같고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서류 제출할 때 좀 유의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금분이 들어가나요?

○○○ 금분인지, 금인지, 채색인지.

○○○ 예, 채색한 미디어가 아마 금분일 것 같습니다.

○○○ 그럼 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금분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 금가루라고 표현이 되어있는 거 보면 금분이 맞는 것 같거든요. 금색이 아니라 금가루 이제 금분으로 그냥.

○○○ 금가루. 이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어떤 평면에서 사각으로 나눠서 좀 그 평면에서 단조로움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의도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이 긴장감이 떨어지고 억지스러운 감이 너무 강해서 아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표현 자체도 장미인데 과연 이 표현, 이 구상적인 이 장미라는 그것이 여기에 어울리는 건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면으로 공간의 적합한 어떤… 건물도 보면 아주 현대적인 건물인 것 같은데 그것과도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좀 그렇습니다.

○○○ 차라리 아주 현대적인 나무 액자 아니고 그냥 아크릴 베이스라든가 이렇게 좀 그렇게 갔으면 조금 더 현대적인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기본은 아주 오리지널 그런 작품의 프레임을 갖다 쓰면서 그냥 그렇게 붙이는 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보시면 그 높이를 이렇게 판을 여러 개를 겹쳐가지고 그 부분에 높낮이를 조절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그림 보면 사이사이 공간 변경이나 유격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렇게 돌리면 움직이나? 하는 정도의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좀 확실히 뭘 표현하고자 하시는 건지에 대한 여기 구체적인 게 너무 없어가지고 좀 많이 좀 아

쉬운 것 같아요.

○○○ 예, 어차피 이제 점수가 나와서 집계가 되면 당락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또 우리가 코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예,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예,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채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작품 모두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점 중)

6. 송도동 172-6

10) <염원>

11) <평온의 숲>

위원장 이어서 10번 염원과 11번 평온의 숲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10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단 10번 <염원>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해 주세요.

○○○ 이 작품은 뭐, 작품 자체가 특별히 이야기 거리가 있는 작품 같지는 않고요. 이것이 설치되는 장소하고의 관계성을 오히려 더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에서는 특별히 실험적인 요소라든가 특별히 어떤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어떤 구성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논할 계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그냥 평온한, 평범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 자체보다는 이것이 어떤 장소에 설치됐을 때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에 더 중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건물 자체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좀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작품들은 좀 약간 좀 건물의 이미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 좀 고전적이죠.

○○○ 예, 예. 약간 좀 올드하고 고전적인 느낌이어서 그게 좀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효과는 좀 적은 것 같거든요.

○○○ 작가 선정을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작가 선정을 한 것 같이 보이네요.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전통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림 기법도 그렇고 나타나는 이미지의 형상도, 주제도 그렇고. 모던한 건물에 걸릴 경우에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 예, 차라리 그러면은 프레임 같은 거를 스테인리스 프레임이라든가

○○○ 그렇죠, 예.

○○○ 약간 그런 현대적인 걸로만 바꿔도 느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 그럴 것 같습니다, 예.

○○○ 이게 꼭 변동이 안 되고 작품에 문제가 그렇게 없다 하면 차라리 그런 식으로 좀 현대적인 느낌하고 건물의 이미지랑 맞도록 그런 쪽을 좀 권장 드리고 싶어요.

○○○ 설치할 곳과 설치 방법 같은 거에 좀 중점을 더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제 저희가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다루는데 이게 공공 공간에 놓여지는 것들이라 이게 만약에 어떤 회장님이시거나 뭐 어떤 그런 공간에 놓여진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이게 공공 공간에 들어서는 어떤 건물의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과연 이 작품이 그런 공간에 적절한가, 공공성에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습니다.

○○○ 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주제라든가 표현기법은 굉장히 동양화 적인데 이거를 오일로 그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성격으로 접목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관적인 프레임이나 이런 것만으로도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 그, 어떤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라도 좀 보완을 해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재료 보면 자개라고 있거든요. 자개가 어디에 붙여져 있는지.

○○○ 나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네, 잠자리 그런 부분만 좀 약간 입체감 있게 자개 쪽으로는 접목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 그럼 그런 것을 설명할 때 어떤 특정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자개다라는 걸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 아, 그렇게도 하죠. 특정 부분을 자개라고

○○○ 보통 다른 자료에는 디테일 컷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또 제출한 경우는 있거든요.

○○○ 네. 현장에서 보면 아마 딱 보면 알 건데 저희가 사진으로만

○○○ 그렇죠, 이미지보다는 훨씬 낫겠죠, 작품이.

○○○ 예, 보니까 그거에 대한 느낌은 없으실 것 같아요.

○○○ 예, 이미지보다는 훨씬 낫겠죠. 아까 말씀하신 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설치할 때 이제 분명히 프레임이 들어갈 텐데, 프레임을 그 건물의 공간에 맞게, 그 공간 분위기에 맞게 한다면 아마 제목도 역시 절충적인 제목이라서 제목을 바꿀 수도 없고.

○○○ 지금 액자는 아크릴 액자라는 거죠?

위원장 그래 보입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작품 토론하겠습니

다. 네, 의견 말씀해 주세요.

○○○ 처음에 얼핏 봤을 때 동일한 작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완전히 다른 작가인데.

○○○ 네, 다른 작가인 것 같아요.

○○○ 어, 이 작가는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익숙한 풍경을 다루고 있지만 색깔이 조금, 색깔이 좀 자유 의지가, 작가 의지가 많이 들어가서 작가의 어떤 특성 같은 게 많이 돋보이는 것 같아서 이건 그래도 나름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요소가 작품 안에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는 순수 테마라고 보여집니다.

○○○ 오히려 팝아트 느낌의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거 같아요. 컬러라든가 이런 보색에 대한 느낌 같은 게.

○○○ 심의도서 8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 네. 예, 이렇게 설치 위치 평면도인데요. 여기 건물 높이가, 건물 층수가 총 27층에, 26층에 설치가 된대요. 그리고 26층에는 거의 연구소, 교육연구시설 등이 있는 공간 중에 휴게 공간 한쪽에 지금 설치가 되는데 과연 이 위치가 일반 시민들이 접근이 가능한 위치인지 의문이고요. 대부분 아마 여기 연구소 사용하는 직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휴게 공간 벽면 높이가 지금 다른 페이지에 보면 5.4m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치수가 맞다고 그러면 두 개 층 오픈 공간이 이제 되게 높은 공간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휴게 공간이 폭은 되게 적고 그리고 왼쪽에 보면 또 기둥이 하나 또 지금 있는 위치에 있어서 이 설치 공간이나 위치가 그리고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소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서 기 이게 저번 달에 들어왔던 심의인데요. 6개 중에 3개가 가결이 됐거든요. 근데 그 가결된 요 세 작품이 제 기억에 5층에 하나, 십몇층에 하

나 이런 식으로 다른 층에 위치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로비에 있던 세 작품이 부결이 되면서 재상정 하는 경우입니다.

○○○ 아, 그러면 재심의를 하면서 위치가 바뀐 거네요?

○○○ 아, 한 작품이 늘어났죠?

○○○ 저기 38페이지 보니까

○○○ 네,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이, 높이.

○○○ 층고에 비해서 그림이 되게 작게 만들어진 거네요. 5m로는 그림이 조금 안 될 텐데 지금 완전 작아보이는데. 그래픽에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이 사이즈가 이제 125 자리인데 길이가 조금 더 길게 느껴져야 되는데, 세로가. 사람보다도 조금 더 커야 되는데

○○○ 그럼 여기 총 몇 작품이 들어간 거죠? 가결된 것까지 포함해서.

서 기 총 7점입니다.

○○○ 7점이요?

서 기 저번 달에 원래 6점이었는데 3개를 4개로 넣은 겁니다.

○○○ 이 건축물이 공장형 건축물이거든요. 공장형 건축물인데 그래서 이게 그 공장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하면 솔직히 그 작품 설치 위치가 이렇게 마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 수도 많고 1층에 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분산하다 보니 높이 26층, 뭐 이렇게 올라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심의도서에 가결된 작품도 표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놓으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보기가 조금 쉽지가 않네요.

○○○ 이거 가결된 세 작품도 동일한 건가요?

서 기 아니요, 다른 작가입니다. 세 작가.

○○○ 다른 작가.

○○○ 뭐, 이미지는 없더라도 가결된 거, 어디에 설치돼서 가결됐다. 이 표기

만 했었어도 딱 좋았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위원장 일단은 뭐, 그렇더라도 이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실정이니까, 예. 네, 의견 없으시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 맨 마지막 작품은 점수 매기는 건 아니죠?

서 기 가결, 부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 어디에다가 표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서 기 예, 적합, 부적합 하는지만 하시면 됩니다.

7. 부평구 부평동 665-8외 2필지

12) <치유>

위원장 지금 12번 자꾸 물어보는데 사회자께서 잠깐 더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예, 12번 작품은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12번 가부만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점 중)

집계결과 발표 및 조건부, 권고 논의

위원장 집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가결 작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결은 안건 번호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11개 작품이 가결이 됐고요. 1번 조각 <Reflecting Donut> 이것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 작품들이 많은데 여기에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작품 <우주의 연금술>은 철판의 두께를 3T 이상 사용할 것이고 내외부 조명의 조도가 과하지 않게 외부 조명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또 ○○○ 위원님은 조명 교체 시 개폐 방법, 교체 방법을 명시하셨고요. ○○○ 위원님은 작품 뚫려 있는 부분 마감을 안전 고려해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마감 처리를 요망하셨습니다. 또 ○○○ 위원님은 조건부 가결을 하되 제작 방법 및 재료 표기가 미흡하므로 판재 3T 이상, 파이프 2.5T 이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고요. 두 번째는 내부 조명이 12W로 교체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 위원님은 스테인 두께 3mm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고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서 기 3T 이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명은

○○○ 12.

서 기 이거는 스테인리스 두 개라고 하면 맞아요?

○○○ 내부 조명, 내부 조명은 12W.

서 기 내부 조명 하면 됩니까? 내부 조명 12W 이상

○○○ 네, 12W.

서 기 이상으로 합니까?

○○○ 아니면 mm로 쓰시던지, 예.

○○○ 아, 저기 1번, 위에요? 3T?

○○○ 예, mm로 쓰셔도 되고요.

서 기 네, 둘 다 이상, 이상으로 하면 됩니까?

○○○ 네, 그러면 돼요.

서 기 하부 부분 마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하게?

○○○ 안전하게 마무리 하면 될 것 같아요.

○○○ 이게 애매하게 하면

○○○ 요철, 요철 부위를

서 기 네. 하단부 요철 부위라고 할까요?

○○○ 매끄럽고 안전하게 이렇게.

서 기 네, 요철 부위 안전하게 ... 이럴까요?

○○○ 그리고 제작 방법 재료, 상세 표기.

서 기 이렇게 하면 될까요? 다 동의하십니까?

(“네.” 라고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사회자 네, 다음.

위원장 네, 다음 3번 작품입니다.

○○○ 네, 읽어주세요.

위원장 ○○○ 위원님이 제작 상세 충분히 숙지하고 재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했고요. ○○○ 위원님이 조건부로 제작 방법 및 재료 표기가 미흡하므로 파이프 2.5파이 이상으로 명시할 것을 했고요.

○○○ 직경.

서 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자, 더 이상 의견 없고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죠?

(“네.” 라고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위원장 다음은 4번 <movement-마장터>입니다. 역시 조건부 ○○○ 위원님이 제작 방법 및 재료 표기 명기, 스테인리스 스틸 3T 이상으로 했고요. ○○○ 위원님이 스테인 3mm 이상 사용할 것을 권장했고요. 또 ○○○ 위원님은 손닿는 부위 투각 문양 날카롭지 않게 처리할 것을 요청했고요. 예, 이 3가지입니다.

서 기 괜찮으신가요?

(“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럼 5번 <솔> ○○○ 위원님이 조건부로 기둥의 재료 깊게는 3T 이상으로 제작할 것, 이파리 부분은 양면으로 제작이 까다로우니 6T 이상 단면부로 제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자, 이견 없으면 이대로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건부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서 기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네, 6번입니다. <행복을 꿈꾸는 가족> ○○○ 위원님이 권고로서 이거는 하부 발목 부분이 약할 수 있으니 보강에 유의할 것. 그다음에 ○○○ 위원님이 야간에 조명 투사 시 작품 전체의 형상이 잘 드러나도록 조명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 위원님이

조명의 위치가 잘못하면 인체를 괴기스럽게 보일 수 있어 야간 조명을 검토가 필요하고, 내부 조명도 잘 고려해 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조건부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디테일하게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서 기 어떻게 또 표현하면 좋을까요? 위치 조정하고 그다음 내부 조명을 더 넣으라는 말씀이신 거, 맞나요?

○○○ 그거 좀 추상적으로 지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절히…

○○○ 추가 검토, 이러면 어떨까요.

○○○ 조명… 예, 그런 식으로.

○○○ 조명에 변경 검토해야

서 기 변경이요?

○○○ 조명 계획 변경

서 기 검토 위치 수정.

○○○ 그러니까 어떻게 변경하라는 구체적인 건 없는 거죠?

○○○ 예.

○○○ 작가의 역량을 믿어야죠, 뭐.

○○○ 예, 예.

○○○ 마치 다 조건부 권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되어 버렸네, 결과적으로는.

위원장 예, 그럼 6번 조명 계획 변경 검토. 이외에 또 제안사항이 없으시면 조건부 통과한 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7번 작품. 7번, 조각 <행복

을 꿈꾸는 현대인>입니다. ○○○ 위원님이 책 부분에 컬러 디테일 등이 완성도가 없으면 퀄리티가 낮아질 듯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했고요. ○○○ 위원님이 작품 설치될 녹지대 폭이 협소하여 조경 분야와 협의를 통해 녹지대 폭을 조정할 것을 검토하라고 했고요. ○○○ 위원님이 작품 설치 부위 플랜트 폭을 확장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

서 기 이 내용들이 맞나요?

○○○ 네.

○○○ 이 컬러나 디테일 주위는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괜찮을까요? 원색이 되지 않게 별도 괄호 칠까요? 아까 원색이 아니라 파스텔 풍이 되도록

○○○ 그러니까 색채가 아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잘 돼 있으므로 원색이나 또 이렇게 생경한 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런 정도로 표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 기 도서의 색상 그대로

○○○ 그대로 적용.

서 기 예, 이렇게 할까요?

○○○ 네.

서 기 그리고 밑에 녹지 부분은 이렇게 녹지… 네, 이 표현이 맞나요?

○○○ 혹시 저게 조건부로 들어가는 건가요?

서 기 이거요?

○○○ 녹지 부분 좀 넓히는

○○○ 녹지

○○○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 예, 작가가

○○○　　그 조경하고 협의를 하라는 조경 전문가가

○○○　　검토하라는 거죠. 네, 권고.

○○○　　그렇죠. 그러면

○○○　　검토. 협의 검토.

○○○　　조건부로, 권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　　조건부로 하려면 저걸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서 기　　반드시 반영해야 됩니다.

○○○　　예,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건데

서 기　　아, 네. 이건 권고로 넣는 게 맞는 건가요?

○○○　　네. 넓은 게 좋긴 한데.

서 기　　됐나요?

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건부 통과한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건 권고 통과죠?

○○○　　지금 조건부, 6번에

○○○　　예, 예. 그런데 이게 사실 내부 조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넣은 거예요. 사실 조건부로 지금 그걸 내부 조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는

서 기　　그럼 내부조명 빼고 조명으로 쓸까요?

○○○　　그러니까 이제 상향식 조명을 어떻게 좀, 좀 효과적으로 잘 위치 조정 같은 걸 해라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여기다 내부 조명을 지금 설치를 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작품 작가의 의도하고도 완전히 동떨어지고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거 내부 조명… 이거 지금 다 용접이 돼 가지고 막혀 있는 구조인데

○○○　　아니, 여기 지금 저기 조건부에 내부적이라는 말은 없어요.

○○○　　여기는 없어요.

서 기 이렇게 괜찮습니까?

○○○ 심의 때는 밑에서 조명 올리니까 위에까지 이렇게 조명이 바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 현재 밑에서 올리는데 부적절하다 이거예요.

서 기 알겠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이거는 나중에 작품이 설치된 이게 결과물인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조건부 심의하는 거는 심의도서만 가지고 심의를 하거든요.

○○○ 권고로 다 빼셔야 될 것 같아요.

○○○ 그래요, 네.

서 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8번 회화, <Space-220716> 입니다. ○○○ 위원님이 사용 재료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제작 방법 역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 위원님이 8, 9번 작품 연계성을 고려해서 같은 벽 연속 배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다음에 ○○○ 위원님이 8, 9번을 모아두는 것을 검토하라고 명시했습니다.

○○○ 8번 두 번째 줄은 권고로 내려주세요.

서 기 8번, 9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9번 회화, <Space-220712> 8번하고 이하 동일합니다. 10번 회화, <염원>

○○○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작품을 두 개를 이제 같이 연계해서 같은 장소에다가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시는 거잖아요, 작품. 근데 권고를 하게 되면 그냥 현 위치에 설치가 돼도 큰 제약은 없습니다.

○○○ 그렇죠, 권고니까.

○○○　　예, 예.

○○○　　한 번쯤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고 권고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여기에서 아예 의결을 같은 장소로 하라고 하면 도서가 이제 전체가 좀 바뀌어서 이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권고로 이렇게 해서 그냥 하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그대로 우리는 할게.' 그러면 그대로 그냥...

○○○　　네, 네, 네. 이게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만 하면 되죠, 뭐.

○○○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네, 네.

위원장　　오케이. 10번 <염원> 입니다. ○○○ 위원님이 전통적 소재의 현대적 기법이 차별화되기는 하지만 올드한 느낌이 현대적 건축물에 어울리기에는 좀 보편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프레임 소재 등을 스테인 메탈 등 과감하게 시도해 보길 권유한다고 말을 했고요. ○○○ 위원님이 권고로서 조명 설치를 검토를 하라고 명기했고요. 예, 이 두 가지입니다.

서　기　　이렇게 표기를 해서 내겠습니다.

○○○　　예, 잘했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11번 회화, <평온의 숲>입니다. ○○○ 위원님이 설치 위치 대중의 접근성을 검토하라고 하였고 설치 벽면 뒤 휴게 공간에 기둥이 있으므로 이동을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 위원님이 권고사항으로서 조명 설치를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대로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게 지금 아까 10번에 조명이 권고이고, 여기는 조건부인데 두 개 다 통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　　어떤, 어떤 거요? 11번도 권고.

서 기 11번도 권고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 네.

○○○ 조명 설치 검토.

○○○ 저기 11번은 조건부에서 위치 이동을. 만약에 다른 데 설치할 데가 없으면, 적당한 데가 없으면 그것도

○○○ 기둥을 피해서 좀 앞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 한 1, 2m만 옮겨도.

○○○ 권고사항에 넣으면

○○○ 될 것 같기도 한데.

서 기 그러면 기둥 피해서 설치, 이렇게 할까요?

○○○ 네, 네, 네.

서 기 네, 네, 네.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의견이 수렴됐으므로 다시 이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2, 3, 4, 5, 6, 8, 9, 10, 11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다수 있음)

위원장 또 권고사항의 경우 6, 7, 8, 9, 10, 11 저기 앞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것, 그 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들 다수 있음)

위원장 예. 그래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건의 심의 안건 중 2, 3,

4, 5, 6, 7, 8, 9, 10, 11은 조건부 및 권고로 가결되었으며 나머지 1번은 부결되었음을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자, 이것으로 2023년 4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 -